

자공심은 높은데 취업은 글썽...

동국대 불교대학 구성원 상당수가 불교학 전공이 취업 및 진로를 결정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동국대 불교대학 발전을 위한 교과과정 전반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동국대 이사회 내 불교대학발전위(위원장 영담·이하 발전위)은 지난해 12월 6일~을 1월 21일 서울 경주 캠퍼스 교수, 강사, 대학원생, 재학생, 졸업생 등 총 458명을 대상으로 동국대 불교대학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3월 17일 관련내용을 발표했다.

설문은 서울 경주 캠퍼스 교수·강사 107명(67명 회수), 특수대학원을 제외한 대학원생 132명(29명), 재학생 462명(236명), 졸업생 1616명(12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발전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8일 덕암세미나실에서 불교대학 발전을 위한 제1차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설문은 주로 재학생들의 취업 및 진로, 교과과정, 교수인용과 교수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대학원생(21.9%)과 졸업생(7.79%)의 응답이 저조해 학교 밖에서 보는 불교대학의 문제를 충분히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불교대학의 실태와 관련한 설문조사는 수차례 있었지만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는데 반해, 이번 조사는 관련 정관계 등 정책결정의 권한을 가진 동국대 재단이 교과

동국대 재단, 교수·학생·졸업생 458명 설문

과정 전반과 교수 인용과정 등의 문제점들을 직접 조사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후 행보가 주목된다. 설문 내용을 간추린다.

재학·졸업생 모두 자부심 높다

불교대학입학동기를 살펴보면 학부생은 불교에 대한 관심(75.4%), 대학원생은 전공의 심화(41.4%)와 학자가 되기 위해서(37.9%)라는 답변이 많았다. 그러나 이들 학부생이 막상 입학 후에는 취업과 진학(32.6%)문제라고

(18.1%) 등을 꼽았다. 또 종단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선행과제로 55.2%의 응답자가 '조계종-동국대 간의 연구협력체계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졸업생들은 불교대학의 사회적·불교적 위상저하의 요인을 동국대의 전반적인 위상저하(30.3%), 교수진의 수준저하, 종단의 지원부족(각 18.5%) 등의 문제를 지적, 최근 각종 대학평가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동국대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했다.

동국대-조계종 관계개선 요구 높아 취업위해 응용불교학 교육 강화 제시 발전저해 요인 "교수관심 부족" 35%

민이 큰 것으로 나타나 학문적 수요가 낮은 불교학의 사회적 활용을 확대하는데 불교계가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들이 느끼는 불교대학에 대한 자공심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재학생 졸업생 64.1%가 자신이 불교대학에 다니거나 다녔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불교대학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불교대학 이미지 제고(24.2%), 취업을 제고(23.6%), 유능한 교수 유치

불교 직장 얻고 싶지만 열악한 근무조건 걸림돌

불교학 전공이 취업 및 진로 선택에 불리한 이유로 응답자들은 불교학이 사회와 불교계에서 수요가 없는 학문이기 때문(48.6%)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불교계 희망·추천 직장으로는 불교계 종립학교(15.0%), 불교계 시민사회단체(14.6%), 불교계 사회복지기관(12.2%) 등을 꼽았으며, 불교관련 직장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71.2%의 응답자가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낮은 임금(42.4%),

열악한 근무환경(21.2%), 자기발전 부재(12.1%) 등을 이유로 불교 관련 직장을 갖지 않겠다고 대답한 응답자도 적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응답자들은 불교대학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응용불교학 교육 강화와 교과과정 개선(51.0%), 학생들의 자기개발(19.0%), 종단의 관심유도(18.3%) 등을 제시했다.

교수사회 의식전환 필요

교·강사의 강의에 대한 성실성은 성실(45.5%), 보통(36.4%)이라고 답한 반면, 졸업생들은 불교대학 교수들이 학생상담, 지도가 부실(불만족은 36.5%)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졸업생의 상당수가 재학시 교수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교수진과 인용과정의 투명성 확보도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강사 상당수(36.2%)가 동국대의 교수 인용과정이 폐쇄적이라고 답해 그동안 이와 관련한 외부의 인식이 상당한 근거가 있음을 반증했다.

교·강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불교대학의 발전저해 요인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불교대학 교수진의 관심부족(35.2%), 교수간의 반목 분위기(33.3%), 학생에 대한 교수들의 무관심(11.1%) 등을 지적해 현재 교수들의 화합과 의식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은 "조사계획서 취합과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 4월에 환경조사가 시작될 것 같다"고 전했다.

유철주 기자

재가연대, 쌀 지원자 선정 45개 단체·개인 발표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 이하 재가연대)가 주관한 '제2차 시민운동가 마음나누기-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가 선정 발표했다. 이번엔 선정된 경실련을 비롯한 45개 단체 소속 활동가들은 3월부

터 매월 9인 1조로 40kg씩 2회에 걸쳐 쌀을 받게 된다.

조계사(주지 원담)와 봉은사(주지 원혜)가 각각 20가마와 25가마를 지원해 이뤄진 이번 사업에 대해 재가연대는 △신선순서 △소속단체가 동일할 경우 지역단체 △신청사유상의 질박성 △여성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재가연대 박광서 상임대표는 "2006년에도 더 많은 협찬처와 이웃 종교단체 등을 확보해 '제3차 시민운동가 마음나누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독도영유권 침탈 중단하라”

불교단체 잇따라 日 규탄 집회·성명 발표

청년학생본부, 대한불교청년회, 조계종 중앙신도회, 평화실천광주전남불교연대 등이 연달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와 관련 집회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본을 규탄했다.

대불청, 대불련, 기독교청년협의회, 가톨릭청년학생연대 등 28개 청년단체가 활동하는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동 남측 준비위원회 청년학생본부' 대표 김익석, 이하 청년학생본부는 3월 15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제정과 역사 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

었다. 청년학생본부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

한 남북해외 특별결의문'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우리민족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침략적 움직임이기에 용인·용납할 수 없어 적극 대응하겠다. 일본 정부는 2005년 역사교과서 검정과정에서 문제가 될 범죄적 과거사의 축소·왜곡을 조속히 시정·검정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일본대사관에 전달한 기자회견문에서 "주한 일본대사의 사과,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지정 철회, 역사왜곡 행위 중단, 주일대사 추방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3월 16일에는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가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지정 조례 통과와 관련 "일본의 독도관련 조례 통과

우리나라에 대한 선전포교로 규정한다"며 "독도관련 조례안의 즉각 폐기 및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국제사회에 선언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김익석)는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독도 조레인 폐기 △한일 어업협정 파기 △친일 청산,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과거 청산 등을 요구했다.

같은 날 평화실천광주전남불교연대(상임대표 행법, 이하 불교연대)도 "일본 극우세력이 지난날의 조선 침략과 강점을 합리화하고 독도를 분생지역으로 묘사하는 파렴치한 교과서 왜곡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 민족에 대한 선전포교나 다름없는 짓이다"며 일본을 강력히 비난했다.

강지연·유철주 기자



조계사 일주문기공식에 참석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가운데)을 비롯한 종단 관계자 및 정·관계 인사들이 시삽을 하고 있다.

군법당에 위문품 보낸다

군불교진흥회 2만여명

매년 군법당에 위문품보내기운동을 벌여온 (사)군불교진흥회(이사장 정각·법륜종 종정)가 올해에도 부처님 오신날을 즈음해 2만여 개의 위문품을 전달한다.

위문품은 경기도와 강원도지역의 전방부대에 우선적으로 발송되며, 위문품에는 음료수, 초코파이, 초콜릿, 과자, 합장주 등이 포함된다.

군불교진흥회는 위문품 제작·포장에 소요되는 5천여만 원을 회장단, 이사 등의 특별 후원금, 각 종단과 불자들의 후원금 등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3월 14일부터 모금에 들어갔다. 자비를 군부대에 보낸 불자들의 경우 자녀가 근무하는 부대에 지정기탁도 가능하다. 박봉영 기자

조계사 일주문 기공식

올 부처님 오신날 이전 완공

조계사(주지 원담)는 3월 12일 일주문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총무원장 법장, 원로회의부 의장 지해, 중앙종회의장 법등, 총무부장 무관, 기획실장 법안, 조계사주지 원담, 직지사 주지 성용 스님을 비롯해 정동재 문화관광부 장관, 이명박 서울시장, 백장기 중앙신도회장, 박진 한나라당 의원, 최재성 열린우리당 의원, 김충용 종로구청장 등 종단 중진 스님 및 신도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조계사 일주문은 우정국로와 경내를 잇는 관문으로 중요무형문화재 74호 전흥수 대목장이 공사 전반을 책임진다. '솫을산문' 형식의 맞배 지붕인 일주문은 15평 규모에 폭

8.8m, 길이 20.5m 높이 10m로 5월 부처님 오신날 전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조용수 기자

교수포교사제 도입 요청

교불련, 법장 스님 예방

김용표 회장 등 교수불자 연합회 회장단은 3월 17일 법장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불자 교수들을 조직해 해 학교일선에서 포교하는 교수포교사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교불련에 등록된 회원수는 1500여명. 실제로는 5000여명으로 추산하며 이들 중 신청자를 접수하고 포교원 등의 추천을 받아 교수포교사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 교불련의 계획이다. 남동우 기자

생명나눔 실천본부

장기기증 캠페인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법장)는 3월 12일 부산 구덕체육관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 부산시당 대의원대회'에서 올해 첫 장기기증 캠페인 사업을 진행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이날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의 협조를 받아 2000여명의 대의원들과 당원들을 대상으로 장기기증 회원등록의 필요성을 강조, 600장의 장기기증 회원가입 신청서를 배포했다. (02)734-8050 김강진 기자

천성산 환경조사 4월 착수

분야별 계획서 검토후 실시키로

지난 2월 3일 지을 스님이 단식을 회향하면서 정부와 합의한 천성산 환경영향조사가 4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3월 12일 정부와 지을 스님측 공동조사 전문가 14명이 참석한 천성산 현장답사 결과 양측은 시추지점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일

정에 의견집근을 이뤘다.

양측은 간천계곡 등 몇 군데 시추할 지점을 확인했으며, 양측 전문가들이 각 분야별로 계획서를 작성해 구체적인 방법이 확정되면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지을 스님측 조정 역할을 맡고 있는 녹색연합 서재철 자연생태국장

2005년 재가在家 화엄학림 華嚴學林 제1기 수강생 모집

(사)자비신행회. 실상사 화엄학림 공동교육기관

실상사 화엄학림과 사자비신행회가 공동으로 대승경전의 꽃 화엄경을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한 <재가 화엄학림>이 문을 엽니다. 2년과정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와 7시, 주야간으로 마련되며 초기불교, 부파불교, 유식, 중론, 금강경 등의 기본교육 과정과 화엄사상사, 화엄현담, 화엄경 등의 전문 교육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재가 화엄학림 강사진은 도법스님, 재연스님, 각록스님, 해강스님 등 현 실상사 화엄학림 강사진이 참여합니다. 그동안 재가불자들이 접하기 어려웠던 화엄사상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재가 화엄학림>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학년	교과목	담당교수
1	초기불교	재연 스님
	부파불교	각록 스님
	대승불교개론	해강 스님
	중론	재연 스님
2	금강경	각록 스님
	유식개론	각록 스님
	대승경론	해강 스님
	화엄사상사	화엄학림 강사
	화엄현담	화엄학림 강사
이수학점	법계도기(법성계)	화엄학림 강사
	화엄경	화엄학림 강사
이수학점 2학년 4학기(27과목) 총 41 학점		

이수과정
 재가 화엄학림은 화엄경을 중심으로 기본교육과목과 본 교육과목으로 구성 찾아가는 화엄학림을 통한 현장학습과 수련회, 특강으로 구성되며 졸업을 위해서는 총 35학점 이상을 이수 받아야 합니다.
 - 주 1회 수업 : 주간(오후 2:00-5:00, 3시간) (매주 목요일) 야간(오후 7:00-9:00, 2시간)
 - 찾아가는 화엄학림은 학기당 2회, 수련회는 학기당 1회
 - 특강은 방학중에 실시
 - 강의실 : 자비신행회 강당(광주 동구 내남동)

모집요강
 - 대 상 : 불교를 알고자 하는 모든분
 - 정 원 : 총 150명(주간 100명 / 야간 50명)
 - 모집기간 : 2005년 3월 25일까지
 - 입 학 식 : 2005년 3월 26일 오후 3시(도법스님 개강 특강)
 - 문 의 : 사)자비신행회 사무국 062-234-2732

